

특별기고

이난경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이제 그 더위로 자연의 법칙대로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겠지만 올해는 유난스럽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이다.

올 가을 광주는 축제의 도시로 바뀔다. 디자인비엔날레, 전국제전, 김치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이어진다. 광주시는 이어지는 행사의 준비로 그 어느 해보다 바쁘다. 그 중 가장 큰 행사는 디자인비엔날레다. 신문도 연일 디자인비엔날레 준비상황과 홍보 기사를 올린다.

제작된, 디자인의 불모지랄 수 있는 광주가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시작했다. 이미 성공을 거둔 '광주비엔날레'에 편승한 감이 있지만, 일단 디자인이란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였던 만큼 외향적으로 성공은 했다.

올해 2회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첫해의 성공을 이어나가야 하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주제와 전시내용의 질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빛의 시인'이라 불리우는 '임고 마우리'를 대표 디자이너로 선정해 행사의 격을 높여주고 있다.

요즘 지자체들은 각종 이벤트를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쉽고 빠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행사는 하드웨어적 인프라 없이도 아이디어와 기획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지역행사의 성공을 발판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베니스비엔날레를 비롯하여 카셀도큐멘타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가 초창기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음에도 지역의 문화·예술과는 유리된 채 치러지면서 점차 광주 시민들로 부터는 외면 받는 남의 잔치가 되고, 외부인들로 행사를 치르기에 급급

하다가 결국은 신정아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 광주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은 '광주비엔날레'를 계속 사랑해줄 수 있을 것인가?

광주는 디자인의 기반이 되는 산업의 비중이 낮은 도시이다. 한마디로 디자인을 전공해도 취업할 곳이 없다는 말이다. 디자인을 생산해내는 도시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한다. 광주에서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해도 그런 그냥 행사일 뿐이다. 심하게 말해서 어느 지역에서 하나 상관없다는 말이다.

빛, 디자인, 그리고 광주

물론 행사 자체는 성공할지 모른다. 그러나 점차 광주는 끼어들 틈이 없다. '광주비엔날레'처럼.

광주 시민들은 광주에서 열려주니 교통비 안들리고 세계적인 디자인들을 감상할 수 있다. 시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보고 나와 다시 돌아간 생활에서 디자인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디자인은 질서다. 디자인은 아름다운 질서다. 디자인은 아름답고 유용한 질서다. 디자인의 영역은 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우리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창조적인 미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서 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에서 열린다는 것은 광주의 지역을 활성화하는 좋은 자산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른 시와 비교해볼 때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데 못한 번지르르한 것은 금방 들뜬 나게 되어있다.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면 계속 이어져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광주가 예술과 디자인이 풍부한 곳이라 기대하고 올 것이다. 그런데 막상 와보면 정리되지 않은 도시의 모습과 인도를 점령하고 자라고 있는 잡초들, 인터체인지 녹지에 버젓이 재배되는 채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시간이 별로 없다. 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밤, 임고 마우리의 조형물을 감상하고 온 타지의 손님들과 함께 유흥가의 조잡한 내온공간에 둘러싸여 맥주잔을 기울이며 나날 이야기가 벌써부터 걱정된다.

<광주여대 교수·디자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재계, 여수 엑스포 유치 총력전 기대된다

기업인들이 오는 11월 27일에 이뤄질 2012년 세계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기대된다. 특히 경쟁도시인 모로코 탕헤르의 기세가 상승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방위 유치를 나선 것은 여수에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제대회 유치전에는 개최능력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별로 차별화된 표심공략이 필요하다. 기업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도 바로 때문이다.

엑스포는 잘만 하면 88올림픽 이상의 국가적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수 중심의 남해안 관광벨트를 활성화하면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여수유치에 두 번 실재는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남은 기간의 유치활동이 사실상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막판 표달란 등 4개국을 방면해 유럽지역 표

심 잡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012 여수엑스포 유치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이슬람권 최초 개최지라는 명분과 유럽과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내세워 범국가적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탕헤르와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국제대회 유치전에는 개최능력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별로 차별화된 표심공략이 필요하다. 기업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도 바로 때문이다.

엑스포는 잘만 하면 88올림픽 이상의 국가적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수 중심의 남해안 관광벨트를 활성화하면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여수유치에 두 번 실재는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남은 기간의 유치활동이 사실상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막판 표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신당 경선 '아름다운 승복' 지켜져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주자들이 27일 선거인단 동원 및 편별 대리접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첫 정책토론회를 시작했다. 후보들은 '아름다운 경선' 서약식과 첫 정책토론회에서 서로 차별성을 내세우며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 후보에 관심이 쏠려 있는 마당에 다관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신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주자로 이명박 후보를 확정했지만 범여권은 민주신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돼 뒤늦게 경선무대를 본격화했다. 당대가 12월 본선을 향해 스타트에 나선 반면 범여권은 우여곡절 끝에 출발점에 섰다는 차이가 다르다.

상황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60%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범여권은 10%대 지지자 한 명 없이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의 지지율로는 정권 재창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일부에선 '도로 열린우리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통합에 실패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및 시민단체 인사를 빼낸 열린우리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내 1당에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한 셈이다.

범여권 후보들은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비난을 퍼부으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직 기초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경선은 치열할수록 바람직하다. 과거 여론에 몸담은 만큼 국정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성하고 왜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는지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후보들은 차별화에 주력하되 반목과 내분을 더 이상 확산시키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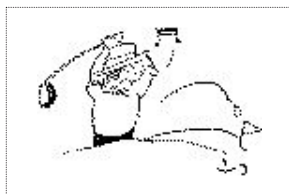
無等鼓

2004년 4월 10일, '살아있는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는 74세의 나이로 메이저골프대회인 마스터스에 50회 출전 뒤 2대회와 영리한 작별을 고했다.

정확히 1년후인 2005년 4월 10일, 마스터스가 열리고 있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18번홀 그린에서 마지막 퍼팅을 앞둔 또 다른 골프 영웅 닉 니클라우스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는 골프장 근처에 산 덕에 정식 캐디도 아닌 포어캐디(페어웨이 앞에 나가 떨어지는 타구를 보는 사람)로 골프장 잔디를 처음 밟아봤고 이후 캐디를 하다 손님이 준 중고 아이언 2개(5번, 7번)를 얻어 혼자 골프를 시작했다. 하루에 공을 맨땅에서 3천620개까지 때려 날도 있었고 하루에 113홀을 걸어서 경기한 적도 있었으며 13주 연속 아시아와 일본투

한장상



이 65세. 니클라우는 4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마스터스와 그렇게 이별을 하고 있었다.

'한국 골프의 전설' 한장상(69·한국프로골프협회 고문)은 당시 파머와 니클라우스의 퇴장을 잇달아 지켜보며 파머가 마

스터스에 50회 출전한 것처럼 한국최고의 메이저대회인 KPGA선수권대회 출전 50회의 대기록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결국 그는 지난 21일 KPGA선수권대회 1라운드에 참가해 1회 대회부터 단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50회 출전이라는 위업을 세운 뒤 은퇴했다.

속 아시아와 일본투어에 출전한,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 박정희, 정일권, 이병철 등에게 골프를 가르쳤고 구옥희, 장익재 등 제자를 길러낸 한국 골프의 개척자였다. 72년에는 일본 최고의 대회인 일본오픈드 석권했

다. KPGA선수권 7회 우승이라는 그의 대기록은 앞으로도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다. 한국 골프의 산 증인도 나이를 속이 지 못한 채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파머나 니클라우스만큼 그의 이름과 기록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hh@

NGO 칼럼

정병원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대한민국에 아직도 밥을 굶거나 제대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명 가량 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결식 아동수가 19만7천여명이고, 독거노인이 80만명이 넘는다.

그 중 시급하게 식사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결식 위험에 노출돼 끼니를 걱정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결식아동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식사를 거르는

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보내줘 고맙다"며 자원봉사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구멍에서 건물을 무료 임대해주고 월드컵전에서 예산을 지원했지만 '동구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개소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컸다.

도시락제작 및 배달은 사회복지와 영양사·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락 사업이 좀 더 질 높고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또 '이웃과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나

결식 이웃에게 사랑 담긴 저녁 도시락을

노인과 아동들이 10만여명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 광주시 동구에 '동구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이 문을 열어 지역 결식 어르신 160명과 결식아동 40명 등 200명에게 따뜻한 저녁 도시락을 제공하게 됐다.

그동안 사랑의식당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식사·식권제공, 기타 밑반찬 및 도시락배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점심 식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이런데 광주지역에서 시작된 저녁 도시락 배달 사업 도중에 만난 한 어르신은 "대충 물에 말아 저녁을 먹으려고 했

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보내줘 고맙다"며 자원봉사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때 우리 지역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은 없어질 것이다.

돈을 들여 영양 높고 맛있는 도시락은 만들 수 있다. 또 이를 배달하는 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끼의 식사와 함께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다.

물론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복지정책과 예산투자, 민간단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여기에 시민들이 소독의 일부를 나누는 기부정신을 발휘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가 함께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이다.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 총무부장>

윈터치 캔 손 베기 심상... 안전에 신경썼으면

일요일 아침 가까운 공원으로 돗자리를 가지고 소풍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 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김밥에 넣을 참치 캔을 따르다가 캔 날에 손을 크게 베인 것이다. 병원 응급실에 가서 다섯 바늘을 꿰매고 돌아왔다.

간편한 윈터치 캔 제품은 너무나 많다. 콜라·사이다 등 음료수부터 복숭아 등 과일 통조림, 콩지·고등어·참치 통조림, 맥주까

지 전부터 캔 제품이다. 충분히 안전성 검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다쳐서 케맨 뒷 살펴보니 여간 위험한 게 아니다.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제품의 질, 맛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것, 기업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바람 피우는 망토 개코 원숭이



이 녀석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미와 새끼 사이로 여기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망토 개코원숭이 암·수컷이다. 나이도 비슷하고 다른 종족도 아니다.

망토 개코 원숭이라는 이름은 수컷의 긴 은백색 털이 마치 망토를 얼굴부터 발끝까지 걸친 것 같아 보여 붙여진 멋진 이름이다.

자신들은 한 번 써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 망토가 이름에 붙는 것을 보면 동물 이름도 자신들과는 상관없이 지어지는 것 같다.

망토 개코원숭이 이외에도 개코원숭이 종류는 4종류가 더 있는데,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인근에 살며 주로 초식을 한다. 개코원숭이라고는 부르지만 코가 그리 개와 닮지는 않았다. 영어의 '바본'(baboon·짓는 원숭이)을 우리 식대로 해석해 버린 결과다. 이들이 개와 닮았다고 한다면 경고음을 낼 때 마치 개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짓는다는 점이다.

개 소리 말고도 이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며 의사소통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언어가 많은 종류의 동물들은 주로 무리생활을 하는 것들이 많다. 이들의 경우 대단히 조직적인 무리를 이루면서 아프리카 사막과 초원의 한 귀퉁이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의 영역 안에는 감히 사자나 하이에나도 함부로 들어 올 수가 없다. 공격을 한번 시작하면 사냥기로 유명한데다 송곳니의 크기와 날카로움도 결코 사자 못지 않다.

우두머리는 가장 찬란한 옷을 입고 힘이 센 녀석이 차지하며 모든 암컷들을 독차지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무리 내 패 다양한 유전자 분포가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암컷도 독재자인 수컷 몰래 제법 바람을 피운다는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hwnat@hanmail.net

엔터티 국민주택 채권제도, 즉시 개선돼야

8년 전 집을 사며 국민 주택 채권 7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국민주택 채권이나 혹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는 교통채권 등은 모두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것들이다.

할인 판매로 넘기면 적잖은 손해인 것 같고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채권을 전량 구매했는데, 최근 집안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그 채권을 발견했다.

은행에 되팔려고 갔더니 원금밖에 못 주며 지난 8년간의 이자는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었더니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채권 구입 후 5년인데 2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이자를 주도록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금조차도 만기 후 5년이 지나면 한 푼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채권의 상한 규정대로 팔지 않은 책임이 나에게 있지만, 채권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이라 여겨진다.

채권을 구입하고 싶어 산 사람은 없다. 의무적으로 사라는 규정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채권 이자의 만기 시효를 상한일로부터 2년으로 못 박고 채권 원금도 만기 후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엔터티 규정은 즉시 고쳐야 한다. ▲이정하·나주시 대기동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7>, 조서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